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4]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2. 5. 31 | 발행인 : 민무숙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평등 개선사례 -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

강 경 숙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전략이자 도구로, 우리 사회에서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 단체사업을 중심으로 본격 실시되었음
-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은 '법령', '계획', '사업'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정책의 성격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시기,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음. 그러나 조례를 재·개정하거나 계획 및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전 평가'를 기본으로 함. 한편, 계획 및 사업의 경우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사후 평가'가 강화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한편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오랜 추진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평가 주체인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觀點, gender perspective)을 가지고 사업의 전 과정(기획-집행-평가 및 환류)을 추진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름
-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역별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민간 전문가가 지원하는 컨설팅과 교육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평등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한 첫 단계는 각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통하여 적절하게 성평등 개선안을 기획하는 작업임. 특히, 이 과정은 정책 실행에 있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가 함께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제주도 정책의 성평등 기획 및 개선 사례를 발굴·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제주도의 성평등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추진 기반

■ 개념 정의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 실행을 위한 주요 도구로 이외의 성 주류화 전략 정책으로는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및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 등 이 있음. 각 제도의 개념은 아래와 같음
-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행정개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고려”하는 성평등 전략을 의미함(여성가족부, 2016)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여성가족부, 2022)
- **성인지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하는 제도”임(행정안전부, 2021)
- **성인지통계(gender statistics) 및 성별분리통계(sex-disaggregated data)**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통계”(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로, 예를 들어 성별 경제활동참여율과 같이 성별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 **성인지교육(gender training)**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임(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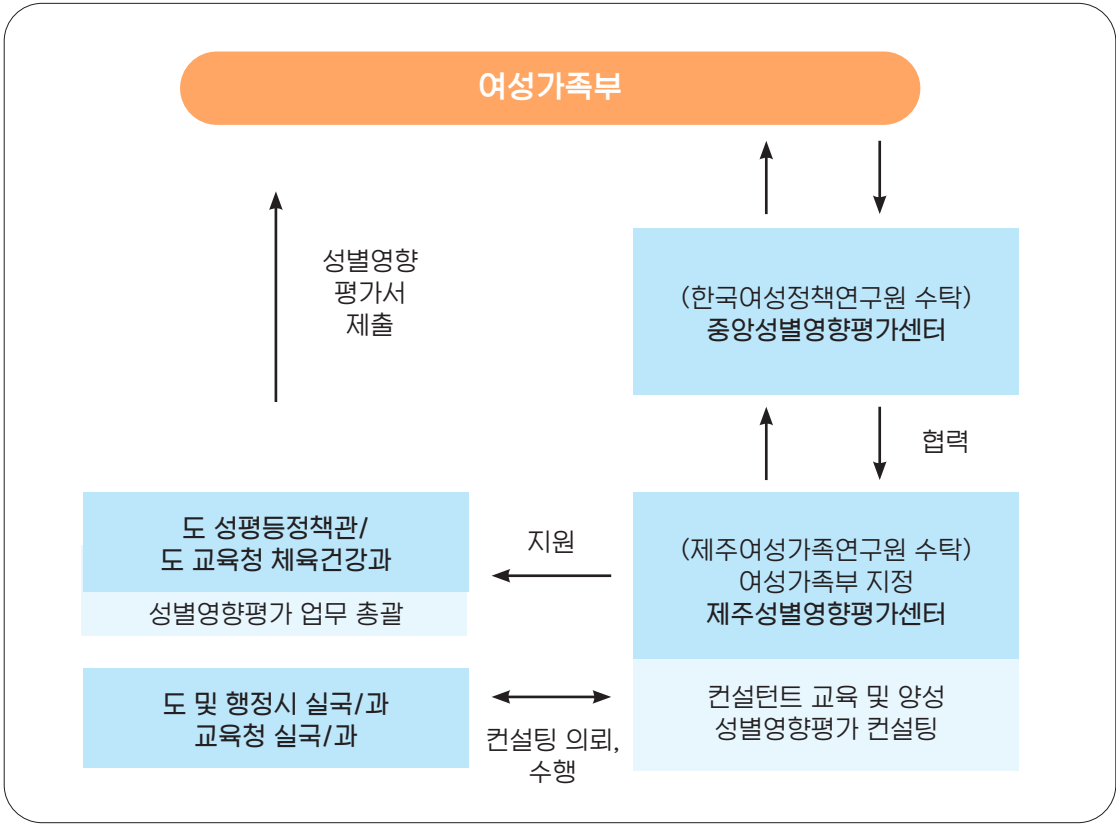
■ 법적 근거

-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15.7.1. 전부 개정 시행)」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11.9.15)」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15.12.31. 전부 개정 시행)」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조례(‘14.8.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조례(‘18.10.11.)」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19.7.10.)」를 제정하여 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 추진 체계

- 중앙정부와 제주지역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체계는 [그림 1]과 같음.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전담 부처(부서)는 여성가족부와 도 성평등정책관(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이며, 여성가족부가 지정·운영하는 지원기관으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수탁)가 있음
-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전문 컨설턴트 20여 명을 위촉하여 공무원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1] 중앙 및 제주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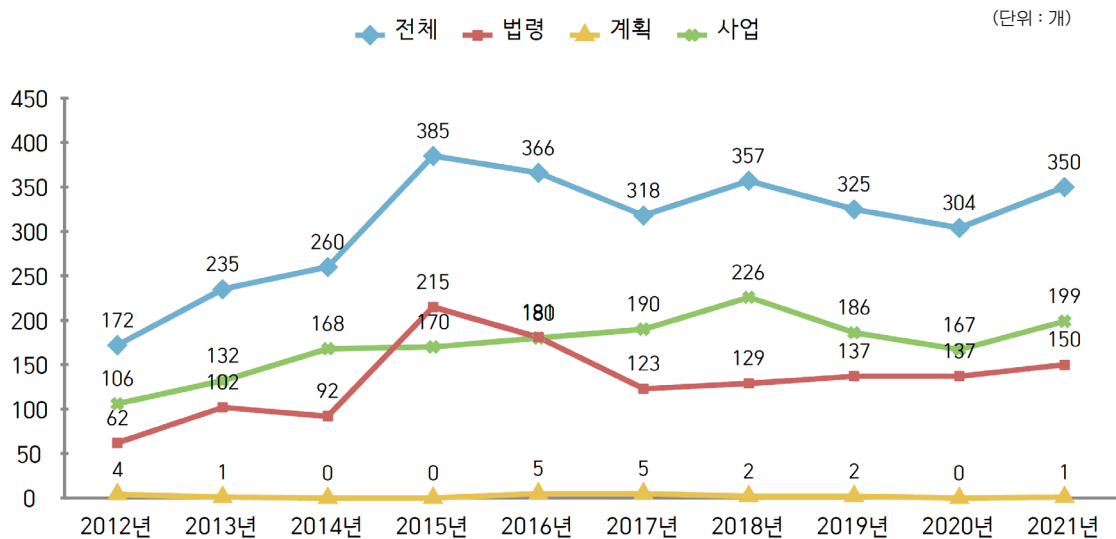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및 절차

■ 과제 추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 1개 ‘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172개, 2021년 350개로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총 3,072개로 연도별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그림 2). 2012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사업’에 대한 과제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대상 정책에 ‘법령’과 ‘(중장기)계획’이 포함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짐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별 과제 수(2012~2021년)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는 일반 정책의 추진 절차 및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됨. 먼저, 계획 단계(Y년)에서 대상사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통한 정책개선안을 마련함. 둘째, 집행단계(Y+1년)에서 정책개선안에 대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짐. 마지막으로, 평가단계(Y+2년)에서 개선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짐([그림 3])
- 계획단계(Y년, 대상사업 선정 및 정책개선안 마련) :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6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심)함.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해당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7월)하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8월)함. 해당부서 담당자는 이에 따른 반영계획서를 제출(9월)하고 이와 함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제출(10월)함

- **집행단계(Y+1년, 정책개선안 이행)**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먼저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의 협조 하에 이행점검단을 구성함. 상반기에는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성별영향평가서의 개선안을 심층 분석하고(4~6월) 하반기에는 개선안 이행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이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9~11월)을 실시함. 마지막으로 정책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평가단계(Y+2년, 개선 및 환류)** :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평가, 1월)와 여성가족부(2월)에 각각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을 실시함

[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 절차

계획(Y년) (대상사업 선정 및 정책개선안 마련)	집행(Y+1년) (정책개선안 이행)	평가(Y+2년) (개선 및 환류)	일정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향 마련	이행점검 계획 수립 (모니터링단 구성)/ 이행 독려 및 이행점검 알림	정책개선 실적 및 결과 보고/ 우수사례 포상	1~3월
대상사업 선정	전년도 성별영향평가서 분석	성인지결산서 제출	4~6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이행 독려 및 이행점검 알림		7~8월
검토의견 통보			
반영계획 제출	이행점검표 (증빙서류) 접수 및 분석/현장 모니터링 과제 선정		9~10월
성인지예산서 작성·제출			
반영계획 관리	현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11~12월

자료 : 이해응·강경숙(2019)에서 재구성



4.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 및 개선 사례

■ 계획(Y년): 2021년('22년 회기) 대상사업 선정 및 정책개선안 마련

- 계획단계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통해 성평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단계임.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성평등 의제 및 대상사업 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선정된 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성 교육 및 컨설팅이 이루어짐. 추진 과정 및 성평등 기획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성평등 의제 발굴 워크숍

- 내용 : 제주지역 성평등 목표 및 대상 사업 과제 현황 공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과제 발굴 기준 등 논의
- 참석 : 성인지정책 내 · 외부컨설턴트
- 일시 : 2021. 4. 21. 14:00~16:00(2h)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시 기관별 찾아가는 워크숍

- 내용 : 2020년('21년 회기)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기관별 고충 수렴 및 기타 논의
- 참석 : 행정시 4명, 성평등정책관 2명, 연구원 3명, 컨설턴트 1명 (총 10인)
- 일시 : (제주시) 2021. 4. 6. 10:00~12:00(2h)/ (서귀포시) 4. 15. 10:00~12:00(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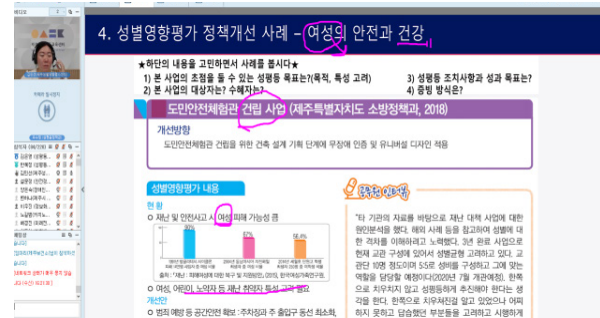


- 대상사업 과제 발굴을 위한 기관 담당자 워크숍

- 내용 : 2021년 성별영향평가(사업) 과제 선정 기준 마련,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 참석 : 총15명(도 및 행정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실무 담당자, 성인지정책 내 · 외부 전문가 등)
- 일시 : 2021.5.12.(선정 기준 마련)/ 2021.5.17.~ 5.24.(성별영향평가 기관별 과제 발굴 워크숍)/ 2021.5. 27.~ 6.21.(선정 기준 알림 및 부서 내 의견 수렴)

● 성별영향평가 교육

- 내용 : 제주지역 성평등 이슈 및 개선 사례, 성별영향평가 작성 실무(1h)
- 참석 : 과제 담당 도 및 행정시 공무원 200여 명
- 일시 : 2021.7.20.(도본청), 7.22.(제주시), 7.23.(서귀포시)
- 방식 : 비대면 온라인 방식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서귀포시 ·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 및 제 · 개정 조례, 계획, 사업대상과제 담당 공무원
- 시기 : 2021. 1. 1. ~ 2021. 12. 31.
- 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정책 개선 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컨설팅
- 방법 : 서면(GIA 시스템, 이메일), 전화
※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 우려로 인해 서면 컨설팅으로 진행

기획 우수 사례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제주시 자치행정과, 2021년)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조성

● 주요 내용

- 소통협력공간 조성(리모델링)
*(위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일동), (규모) 연면적 4,630.68㎡, 지하2층, 지상5층
-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문제해결 활동 사업 추진 :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 ※ '21년 현재 전국 소통협력공간 사업 추진 지자체는 6개소이나, 어린이 돌봄 · 놀이 공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는 곳은 제주시가 유일함



▶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성평등 개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Ⅰ.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 참여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이 대외적으로 지역사회혁신활동 또는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음 ▶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과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육아 및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혁신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적음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시 다양한 시설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장애유무,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또한 최근 돌봄에 남성이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 시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리모델링 시 수유실 및 가족실 설치가 필요함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의 성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으로 사업수혜자 산정이 어려움
Ⅱ. 성평등 조치 사항 (개선 계획)	사업참여자의 성별분리통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협력공간 시설 대관시스템(홈페이지) 구축 시 성별 구분 항목 적용 ▶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문제해결활동 지원 등 사업 실행자 연령별 성별 분리 통계 생산
	지역사회혁신 사업의 성별 균형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사업 공모 추진 시 사업 범주(분야)에 성평등 분야 포함 모집 ▶ 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회혁신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사업 추진 주체가 민간위탁 기관임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 성인지예산 사업임을 명시

* 구분 :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분석지표

▶ 집행(Y+1년) : 2020년('21년 회기) 대상사업 정책개선안 이행 및 점검

- 집행단계는 전년도 대상사업의 정책개선안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이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와 도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성별영향평가서 및 이행자료 분석, 현장 점검 등의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음. 추진 과정 및 성평등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음
- 2020년('21년 회기) 성별영향평가 사업 정책개선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
 - 내용 :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및 도민 등 모니터링단 구성, 이행점검 대상 사업(167개 사업)의 정책개선안 수준 및 내용 분석, 현장 점검 및 담당자 면접 등
 - 참여 : 21명(성인지정책 컨설턴트, 내부 연구진, 도민 모니터요원 3명)
 - 시기 : 2021.4.21.(모니터링단 회의)/ 2021. 4월~5월(개선안 분석)/ 9월~10월 (이행증빙자료 분석)/ 11월.(현장 모니터링)
-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워크숍 및 현장 점검
 - 내용 : 성별영향평가 정책모니터링 실습,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정책개선 사례, 현장 모니터링 실습
 - 참여 : 성인지정책 내·외부 컨설턴트, 도민 등 모니터링단
 - 시기 : 2021. 5월~11월(총 7h)



[정책개선 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워크숍(5.11./11.5.)]



[현장 모니터링 활동(11.22./11.25.)]

개선 우수 사례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진로멘토단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2019년, 2020년)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 대상 직업 소개 및 진로 강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와 소질에 맞는 진로를 조기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 내용

- (2019년) 진로멘토단 신청 학교의 중·고등학생 대상 직업소개 및 진로강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20년) 대학 전공 탐색(관내 고등학생 대상 협력대학 학생들이 프로그램 신청 학교를 직접 방문)
- *협력 대학 : 연세대학교 전공알리미 자원봉사센터(YDMC) 등



▶ 개선 결과

구분	개선안	개선 결과
2019년	멘토구성에서의 성별 균형화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한 멘토 구성)	<p>▶ 남성직업군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를 여성 멘토로 선정 : 경찰, 건축사, 변호사, 드론 전문가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p>경찰</p> <p>드론전문가</p> </div>
		<p>▶ 여성직업군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를 남성 멘토로 선정 : 파티셰, 사회복지사 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파티셰</p> </div>
2020년	대학생 멘토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교육 실시	<p>▶ 대학전공 탐색하기 세부 운영계획에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 예방 및 성평 등 감수성 교육 반영 · 대학전공 탐색하기 세부운영계획(발체)</p> <p>2 운영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간) 2021. 8. 18.(수) ~ 8. 20.(금) *8.17.(화) 오리엔테이션진행 ○ (장 소) 프로그램 참가 학교 ○ (운영대상) 서귀포시 5개 고등학교(서귀포고, 남주고, 표선고, 삼성고, 서귀포여고) ○ (주요내용) 협력대학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공 소개 및 진로 컨설팅 진행 ○ (주최·주관) 서귀포시,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 (협력대학)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 (멘 토) 연세대학생 이상화 학생 외 30명 ○ (전공과목) 공룡·인문·자연계열 등 25개 분야 ○ (소요예산) 9,325천원(시: 7,893천원, 기금: 1,432천원) <p>3 세부운영계획</p> <p>□ 대학생 멘토 오리엔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21. 8. 17.(화) 17:30 ○ 장 소 : 헤이 서귀포호텔 강당 ○ 주 관 : 평생교육지원과(자치행정국장 격리말씀) ○ 대 상 : 연세대학교, 홍익대 등 협력대학 대학생 멘토 25명 ○ 내 용 : 프로그램 일정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유의사항 등 안내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관련 공지 등
	대학생 멘토 위촉 시 성별 고정관념 개선	<p>▶ 남성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전공분야에 여성 대학생으로, 여성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전공분야에 남성 대학생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선호 전공분야(신학과, 응용통계학과, 생명공학과, 치의학과, 도시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에 여성 대학생 멘토 참여 - 여성선호 전공분야(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과)에 남성 대학생 멘토 참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우수부서 시상식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됨

5. 결론 및 개선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음
 -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음. 무엇보다 기존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민관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개선 이행 수준이 이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역 차원의 정책개선 및 환류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 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변화가 필요한데,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신규사업 발굴 확대가 필요함. 이러한 방향에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아울러 대상사업 선정 시 행정 내부의 의견수렴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과제선정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 등 보다 많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상·하반기 이행점검 관리 강화**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집행)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인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안의 이행 및 변경사항 반영 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업 집행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연초에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담당자에게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업임을 환기시키는 물론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인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상반기 평가서 분석 시 평가서 작성 수준이 우수하거나, 성평등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또는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 전 또는 중간 단계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대면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성인지교육 및 컨설팅 강화

- 제주지역 공무원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이해응 · 신승배, 2019)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0% 이상이 '제도 및 업무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함.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업무 수행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9%, '나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21% 순으로 많았고, 성인지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교육'이 21.6%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현장점검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다수의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들은 성인지교육이나 컨설팅이 성별영향평가 제도 이해와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며(특히 대면 컨설팅),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실제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수준과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과 컨설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먼저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상시 교육 과정에 반영, 성인지교육 BSC 반영, 지역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공무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실제 성인지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가 매우 필요함

■ 참고문헌 ■

- 강경숙 · 고민지 · 김민선(2021),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경숙 · 김민선 · 고민지 · 신승배 · 선민정(2021), 「2021년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강경숙 · 이해응 · 고민지 · 김민선(2020),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이해응 · 강경숙(2019),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해응 · 신승배(2019),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